

경북 교육 정책·연구 이슈페이퍼

제호: 제2026-02호

발행월: 2026년 05월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발행인: 원장 이상진

작성자: 연구위원 박준형

경북 교육 혁신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방향

- 라투르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 본고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정례 연구 세미나인 “온(溫) 세미나”에서 2026년 5월 8일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요약]

본 연구는 현대 교육의 지형적 변화와 지식의 데이터화(Datafication)라는 인식론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브뤼노 라투르(B. Latour)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을 렌즈로 삼아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기능과 역할 및 발전 방향을 관계론적 관점에서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 현상을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회-물질적(socio-material) 네트워크로 규정하고, 연구원을 단순한 부속기관이 아닌 국내외 다층적 교육 자산을 연결·조정하는 핵심 결절점(Core Node)으로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다수의 국내외 업무협약(MOU)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교육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원이 의제 설정의 ‘문제화’를 주도하고 지식과 실천을 고정하는 ‘기입 장치’를 장악함으로써 경북 교육 번역의 ‘필수통과점(OPP)’ 체계를 확립해야 함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연구원이 분산된 글로벌 역량을 재조립하는 실천적 지식 허브이자 메타적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 과제와 환류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교육정책, 라투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지식의 번역, 필수통과점, 초연결적 교육 생태계

I. 서론: 인식론적 전환과 교육 네트워크의 확장

현대 교육의 지형도는 물리적 공간의 의미가 축소되어 단일한 지역적 경계 내에 머무르지 않으며, 지식의 데이터화(Datafication)로 인해 지식의 생산과 공유가 전 지구적 지식 순환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기에서 경북 교육의 질적 향상과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교육 현상을 독립적 개체들의 단순한 합이 아닌, '관계적 산물(Relational effect)'로 파악하는 브뤼노 라투르(B. Latour)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을 렌즈로 삼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이 국내외 다층적 기관들과 교류하며 혁신의 담론을 주도하는 메타적 싱크탱크(Think Tank)이자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관계론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은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 영역에서 브뤼노 라투르, 미셸 칼론, 존 로 등에 의해 전개된 이론적·방법론적 관점이다(Latour, 2005; Callon, 1986). 이는 근대 사회과학이 전제해 온 인간/비인간, 사회/자연, 주체/객체, 미시/거시 등의 이분법적 구분을 비판하면서, 세계를 다양한 행위자들이 맺는 관계와 연결의 배치(configuration)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홍성욱 외, 2008) 즉, 조직을 둘러싼 사회기술적 요소들이 상호 연결되어 전체적인 의미 체계를 만들어가며 그 과정에서 비인간 행위자 역시 능동적으로 조직의 의사결정과 성과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이중학 외, 2025: 1544)

라투르는 서구 근대성이 “사회적인 것”을 인간 주체의 의도·의식·구조로 환원해 온 경향을 비판하며, 사회란 이미 주어진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조립(asmbling)되고 재조립되는 네트워크라고 주장한다.(Latour, 2005) 이러한 관점에서 ANT는 특정 현상을 설명할 때 고정된 구조나 ‘상부구조’를 찾기보다는,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의 연결과 그 변형 과정을 추적하는 데 초점을 둔다.

ANT에서 말하는 “행위자(actor)” 혹은 “행위 주체(actant)”는 특정 결과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모든 존재를 의미한다(Latour, 2005). 여기에는 개인, 집단, 제도뿐 아니라, 기술, 문서, 예산, 알고리즘, 공간, 기계,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비인간(nonhuman) 요소가 포함된다.

비인간 행위자의 행위성은 인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속도 방지턱(speed bump)은 운전자의 속도 조절 행위를 강제·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이라는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낳는다(Latour, 1992). 이때 방지턱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교통 규범, 법, 도로 설계, 운전자 습관 등과 얽혀 작동하는 행위자이다. 교육 맥락에서 보면, 교육과정 문건, 온라인 플랫폼, 평가 도구, AI 튜터, 예산 등 행정 공문 및 문서 등이 교사와 학생의 실천을 변형시키는 행위자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 교육 연구는 순수한 “인간과 인간의 교수 학습”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구성하는 사회-물질적(socio-material) 네트워크로 봐야 한다. 인간 행위자는 늘 비인간 행위자들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힘을 발휘하며, 반대로 비인간 행위자는 인간에 의해 설계·사용·변형되며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역시 구성원인 교직원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연구보고서, 데이터베이스, 법규, 예산, 정보시스템 등 수많은 비인간 행위자와 함께 구성되는 네트워크 행위자라고 볼 수 있다.

라투르는 행위자들이 어떻게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번역(translation), 필수통과점(obligatory passage point), 기입(inscription) 등의 개념을 제시한다.(Callon, 1986; Latour, 1987)

먼저, 번역(translation)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이 특정 목표를 향해 재배열되는 과정이다.(Callon, 1986) 칼론은 어류 자원 관리 사례에서, 과학자들이 어민, 행정기관, 조류 등 다양한 행위자의 관심과 문제를 “과학 프로젝트”라는 틀 속에 재정의·조정하는 과정을 번역으로 분석하였다(Callon, 1986). 번역은 네 단계, 즉 문제화(problematisation), 관심 끌기(안테레스망, interressement), 등록(enrollment), 동원(mobilisation)의 연쇄적 작용으로 설명된다. 첫째, 문제화는 특정 행위자가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행위자들의 관심을 자신의 문제 틀로 끌어들이는 단계이다. 둘째, 관심 끌기와 등록은 행위자들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이들이 해당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유인·고정하는 단계이다. 셋째, 동원은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 일부 대표 행위자를 통해 다른 행위자들의 목소리를 대리하게 만드는 단계이다. 이러한 번역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는 결집되고, 특정 행위자는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결집한다.

다음으로, 필수통과점(Obligatory Passage Point, OPP)은 모든 행위자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공통의 경로로 설정된 장소·기관·장치 등을 가리킨다.(Callon, 1986) 예컨대, 특정 연구소나 위원회가 정책 결정의 필수 심의 절차가 될 경우, 그 연구소는 정책 네트워크의 필수통과점으로 기능한다. OPP를 설정하는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들의 관심·요구·자원을 자신을 거쳐 흐르도록 만들면서 네트워크 내에서 강력한 행위성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기입(inscription)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협상을 텍스트·도표·기술적 장치·모형 등의 형태로 고정·표상하는 과정을 뜻한다(Latour, 1987). 규정, 데이터, 그래프, 설계도, 정책 문서, 매뉴얼, 지침, 평가도구, 통계자료 등은 네트워크에서 합의된 결과를 물질적·기술적 형태로 기입한 것이다. 교육 연구에서 ANT를 적용한 선행 연구는 교사 실천과 교육정책 실행이 다양한 행위자와 기입 장치를 통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보여준다.

요약하면, “번역·필수통과점·기입”은 네트워크 구성과 안정화의 핵심 과정이며, 이 세 개념은 연구원과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데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교육 분야에서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교사 실천, 교육정책 실행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유고은·박효용, 2026; 김정식·박상옥, 2025; 한승희·최근정·신혜정, 2025; 정예은, 2025; 신은하·박효용, 2025; 정현철·류춘렬, 2025; 박양주, 2025 등) 이들 연구는 특정 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는 개별 행위자의 의지보다 네트워크 구성 방식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는 점, 연구 기관·교육연구소는 정책 문서, 지침, 자료, 연수 프로그램을 생산·배포하는 행위자로서, 교육 네트워크의 필수통과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는 새로운 행위자를 교육 시스템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 정책·실천의 번역 구조를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이 왜, 그리고 어떻게 국내외 협력을 통해 경북 교육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첫째, 연구원과 연계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행위자를 인간·비인간을 아우르는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각 행위자를 미리 “주체/객체”로 나누지 않고, 구체적 사례 속에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다른 행위자에게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인간 행위자	비인간 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구성원 등 · 경상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 학교 관리자·교사·학생·학부모 등 · 국내외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관계자 · 국제기구, 해외 교육청·학교의 담당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MOU) 문서, 사업계획서, 연구보고서, 지침·매뉴얼 등 · 예산·성과 지표, 평가도구, 데이터베이스, 통계 시스템 등 · 온라인 플랫폼(원격연수, 화상교육, LMS), AI/디지털 도구 등 · 물리적 공간(연구원 교육연구관, 교육지원관 및 안동 관내 공간 등) · 법·제도, 국가·지자체의 교육정책, 국제 규범(UNESCO, OECD, UN 등) 등

둘째, 연구원이 추진한 국내외 협력 사업·협약을 ANT의 번역 단계(문제화-관심 끌기-등록-동원)를 따라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제화 단계에서는 연구원이 어떤 교육 문제(지역 소멸, 학령인구 감소, 직업교육, 세계시민교육, 한국어교육, AI·디지털 교육 등)를 설정하고, 연구원을 그 문제 해결의 필수 경로로 위치시키는가? 둘째, 관심 끌기 단계에서는 국내외 대학·지자체·기업·해외 교육 기관에게 어떤 이익과 역할을 제시하여 네트워크 참여를 설득하는가? 셋째, 등록 단계에서는 협약서, 사업계획, 운영 매뉴얼을 통해 각 행위자의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구체화·고정되는가? 넷째, 동원 단계에서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연구원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다른 행위자의 목소리를 “대표”하며, 그 대표성이 어떻게 검증·조정되는가?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네트워크 성과들을 분석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진행된 연구원의 네트워크 기획 시에도 준거가 될 수 있다.

셋째, 연구원이 특정 협력 영역에서 필수통과점(OPP)으로 기능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경북의 특정 교육 의제(예: 국제교류, 세계시민교육, AI 융합교육, 직업교육 글로벌화 등)가 추진될 때,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연구원을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원이 생산한 연구보고서,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모형이 해당 영역에서 사실상의 표준(inscription)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는 산출물의 권위를 보여준

다. 필수통과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수록, 연구원은 국내외 협력을 통해 유입되는 자원·지식을 경북 교육 전체 네트워크에 배분·번역하는 강력한 허브가 된다. 반대로, 연구원이 단지 개별 사업의 수행기관으로만 남는다면, 협력 네트워크에서의 행위성은 제한될 수 있다.

넷째, 연구원이 생산하는 다양한 산출물(연구보고서, 지침서, 교육과정 모형, 성과 지표, 교육자료, 연수 콘텐츠 등)의 기입 장치로서의 기능을 분석할 수 있다. 어떤 협력 사업이 연구원의 산출물 속에 어떻게 요약·도식화·지표화되어 있는지, 국내외 협력에서 도입된 개념·모형·지표가 연구원의 문서와 도구를 통해 교사·학교·학생의 실천에 어떻게 재기입되고 있는지, 반대로, 현장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경험·실천이 어떻게 연구원의 산출물 속에 다시 반영되어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입 장치 분석은 “국제 협력·국내 협약 등이 단순한 행사나 일회성 교류로 끝나는지, 아니면 연구원의 지식 생산 체계 속에 구조적으로 자리 잡는지”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된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을 경북 교육 네트워크의 한 행위자로서가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행위자를 연결·번역·재조립하는 허브 행위자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연구원의 국내외 협력은 새로운 행위자(기관, 제도, 기술, 담론)를 경북 교육 네트워크로 동원·연합시키는 번역 전략이며, 연구원이 필수통과점과 기입 장치를 통해 네트워크의 흐름을 조직할 수 있을 때, 협력은 연구원의 행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북 교육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연구원은 왜(혹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곧 “연구원은 어떤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서 어떤 필수통과점과 기입 장치를 장악하고자 하는가”라는 ANT적 질문으로 전환될 수 있다.

II. '필수통과점'으로서의 연구원과 번역의 사회학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은 주요 시책으로 '현장 중심의 실천적 교육연구 수행',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육성 지원',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원행정 실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주요 시책과 비전, 핵심 가치 하에서 자체 정책연구, 현장연구, 위탁연구, 교육 포럼, 인성인문학지원, 화상영어, 사이버 진로상담, 경북진학지원센터, e-book 자료실, 자료전 운영 등 정책과 학교 현장과 양면으로 직접 접촉하는 사업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연구원이 단순한 연구를 넘어, 정책·연구·학교 현장·디지털 플랫폼을 매개하는 복합적 행위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라투르와 칼론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연구원의 위상은 경북 교육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를 연결·조정·번역하는 핵심 결절점(Core Node)으로 이해될 수 있다.

01. 연구원은 어떤 행위자인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사회를 이미 고정된 구조나 제도로 보는 대신,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연결과 재조정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되는 네트워크로 파악한다. 이 관점에서 행위자는 개인이나 조직만을 뜻하지 않으며, 문서, 플랫폼, 예산, 지표, 평가도구, 공간과 같은 비인간 요소까지 포함한다.

연구원의 기능은 이러한 사회-물질적 성격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연구와 자료 개발, 연수, 교육과정 지원을 수행하는 지식 생산 기관이며, 다른 한편으로 원어민 학교 방문 수업, 화상영어 캠프, 사례 공유회, 과정중심 평가 자료 개발 등 학교 현장에 직접 개입하는 실행 플랫폼이기도 하다. 즉 연구원은 '연구기관'과 '지원기관'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며, 이 두 정체성은 ANT에서 말하는 번역의 장치로 기능한다. 연구원이 생산한 자료와 프로그램은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정책 언어를 수업 언어로 바꾸고, 현장의 요구는 다시 연구 과제로 회수되면서 정책 재설계를 촉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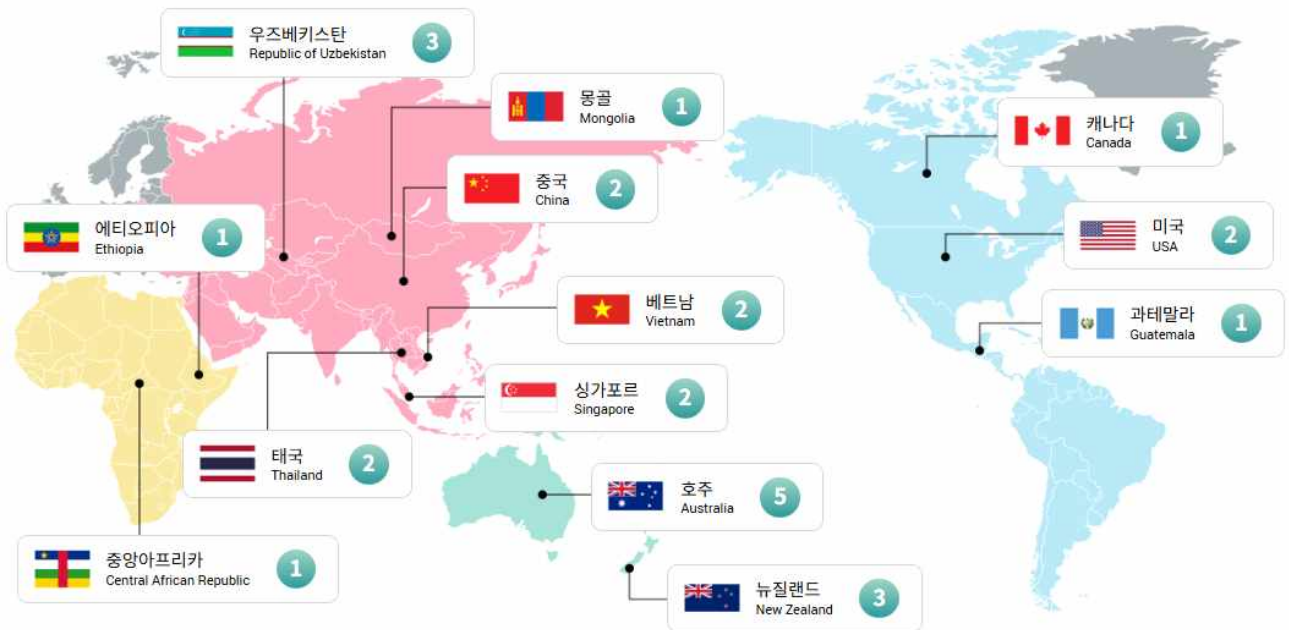
이 점에서 연구원은 수동적인 정책 수행 기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경북 교육이 직면한 문제, 즉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디지털 전환, 글로벌 인재 양성, 다문화 및 이주배경학생 지원과 같은 과제는 단일 조직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고, 필연적으로 다수의 외부 행위자를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ANT의 언어로 바꾸면, 연구원의 실질적 힘은 자체 자원에만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행위자를 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관계를 안정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02. 필수통과점으로서의 연구원

칼론(Callon)은 번역 과정에서 특정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모으고 조정하면서 자신을 '필수통과점'으로 설정한다고 설명한다. 필수통과점은 모든 관련 행위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로이자, 네트워크 전체가 경유하는 허브이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 이 개념을 적용하면, 연구원은 경북 교육의 주요 의제가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 국내외 협력기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북 교육 번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북 교육의 여러 중점 과제는 이미 교육청 차원의 협약과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식 누리집 [정보마당] - [MOU체결현황](<https://www.gbe.kr/main/cm/cntnts/cntntsView.do?mi=4125&cntntslid=2194>)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87건의 국내외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예컨대 2024년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이 보건복지부·경상북도·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과 함께 '경상북도 인구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경북 특색형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다문화학생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발전특구, IB 전문가 양성, 해외 유학생 유치·운영 시도교육청 협의체 등의 협약도 연속적으로 추진되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하와이주 교육부(2023. 11. 15.), 하노이시 교육청(2023. 10. 10.), 방콕직업교육청(2023. 7. 24.), 몽골총괄교육청(2024. 4. 16.) 등과의 글로벌 교육·기술인재 양성 협약이 이루어졌고, 2025년에는 창의인재과 주도로 세계무역센터(쿠알라룸푸르, 2025. 1. 18.)와의 전략적 제휴, INITIA GROUP과의 글로벌 기술기능 인재 양성 협약(2025. 1. 16.) 등이 이어졌다. 이러한 협약은 체결 이후, 실제 정책

의 지속성과 현장 안착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수행하는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림 1] “경북교육 세계로” MOU 추진 현황

(출처: 경북교육 사이버박물관 누리집 <https://cem.gbe.kr/museum/history/data5/main.do>)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원의 필수통과점 기능이 요청된다. 연구원이 필수통과점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단순히 협약 체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첫째, 새로운 협력 의제를 연구 의제로 정식화하고, 둘째, 협약 내용을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자료로 재구성하며, 셋째, 그 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협력 단계의 근거를 제공하는 일련의 순환 구조를 장악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연구원은 협약 이전의 정책 의제 형성, 협약 이후의 사업 설계, 실행 중의 성과 관리, 종료 이후의 제도화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연결하는 중심 허브가 되어야 한다.

03. 번역의 사회학과 연구원의 역할

ANT에서 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각기 다른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통의 목표 아래 새롭게 배열하는 사회적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번역은 문제제기(problematization), 관심 끌기(interessement), 등록(enrollment), 동원(mobilization)의 단계로 이해된다. 연구원의 국내외 협력 필요성은 바로 이 번역 과정의 주도권을 누가 갖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가. 문제제기: 경북의 교육 의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문제제기는 어떤 행위자가 특정 문제를 정의하고, 자신을 그 해결의 핵심 경로로 제시하는 단계이다.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경북의 지역적 교육 문제를 단순한 ‘지방 교육의 어려움’으로 진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적·국제적 수준에서 의미를 지니는 교육 의제로 재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는 경북만의 특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기반 교육체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이며 동시에 여러 국가가 공유하는 글로벌 이슈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주배경학생 지원, 글로벌 기술인재 양성, 인구교육, AI 및 디지털 전환은 국제적 비교와 협력이 가능한 교육 주제이기도 하다.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석하고 담론화하는 장치를 이미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다. 경북 교육의 주요 시책과 비전은

경북 교육의 특수성을 보편적 교육 전환 담론과 연결할 수 있는 서사적 기반이 된다. 원어민 수업, 화상영어, 진로상담, 인성교육 실천사례, 과정중심 평가 자료 개발 등의 사업은 각각 국제화, 디지털화, 진로 전환, 평가 혁신이라는 넓은 의제와 접속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원은 개별 사업을 단순 집행 단위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경북형 교육 전환의 핵심 문제군으로 묶어내고 이를 국내외 파트너들이 함께 풀어야 할 공통 과제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구원은 자신을 지식 순환의 필수통과점으로 세우는 데 성공할 수 있다.

나. 관심 끌기와 등록: 동맹 행위자를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

관심 끌기와 등록은 문제제기 단계에서 제시된 해법을 중심으로 다른 행위자들을 네트워크에 참여시키고, 각자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최근 협약 현황은 연구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동맹 구조가 이미 매우 넓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학들인 대구교육대학교, 경북대학교, 한동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등과의 IB 및 교원 양성 협력, 기초 자치단체인 포항·구미·영주·안동·예천·상주 등과의 미래교육지구 및 교육발전특구 협력, 다수 대학 및 기관과의 건강·진로·고교학점제 협력, 산업단지·기업과의 고졸 취업 및 지역 인재양성 관련 협력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 국외적으로는 하와이주 교육부, 하노이시 교육청, 방콕 직업교육청, 몽골 총괄 교육청, 세계한인무역협회 싱가포르 지회, TASK LABOUR AUSTRALIA, 세계무역센터(쿠알라룸푸르) 등과의 협력이 기구축 되어 있다.

그러나 협약의 존재가 곧 네트워크의 실질적 작동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ANT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협약 이후, 각 행위자가 어떤 역할로 등록되고 어떤 관계망 속에 고정되는가이다. 이 점에서 연구원은 단순한 후속 지원기관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들의 기능을 재배열하는 번역자여야 한다. 예컨대 대학은 연구 자문과 프로그램 검증 주체로, 지자체는 지역 자원 연계와 재정 지원 주체로, 학교는 실험과 실천의 현장으로, 해외 기관은 비교 모델과 공동개발 파트너로, 디지털 플랫폼은 사업 운영과 성과 축적의 기반 장치로 각각 다시 정의될 수 있다. 연구원이 이 역할 배분을 주도할 때 비로소 국내외 파트너들은 느슨한 협력 상대가 아니라 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결된 동맹 행위자로 등록된다.

다. 동원: 대표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

동원은 네트워크가 형성된 이후, 특정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의 이해와 목소리를 대표하면서 네트워크를 지속시키는 단계이다. 연구원의 과제는 국내외 협력의 성과를 ‘행사’나 ‘보도자료’ 수준에서 끝내지 않고, 장기적 프로그램과 표준 모델, 정책 제안으로 축적하는 데 있다. 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자체 정책연구, 교원 현장연구 지원, 위탁연구 운영, 교육 포럼 등은 모두 이러한 동원의 잠재적 기반을 보여준다. 만약 연구원이 이 성과들을 단발성 사업 실적이라 아니라 데이터, 사례집, 평가 틀, 연수 콘텐츠, 학교 적용 모형으로 기입한다면, 연구원은 학교 현장과 교육청, 국내외 협력기관의 경험을 융합한 대표적인 지식 허브가 될 수 있다.

특히 동원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대표하는가’의 문제이다. 연구원이 학교를 대표하려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하고, 국제 협력의 성과를 대표하려면 글로벌 파트너와의 공동 성과 지표와 후속 평가 체계를 가져야 한다. 이때 화상영어, 진로상담, 자료전, e-book 자료실, 연구대회, 현장 연수와 같은 연구원의 기존 플랫폼은 단순 서비스 채널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의 목소리와 실천 데이터를 축적하는 비인간 행위자로 기능할 수 있다. 연구원이 이러한 비인간 장치를 활용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재조정할 때, 연구원은 명목상의 부속 기관이 아니라 실질적 번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된다.

라. 글로벌 연동 체제의 구축과 연구원의 전략적 과제

연구원이 필수통과점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결국 지역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매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설계한다는 뜻이다. 경북 교육청의 최근 협약은 국내 지자체·대학·공공기관·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교육청과 직업교육기관, 글로벌 취업 및 무역 네트워크와의 협력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경북 교육이 ‘지역 내부 문제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 기준과 자원을 번역하여 지역 교육 혁신의 재료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원의 전략적 과제는 이 이질적 협력들을 하나의 지식·정책 생태계로 엮는 데 있다. 첫째, 국내 협력은 지역교육 거버넌스, 미래교육지구, 교원 양성, 직업교육, 인구교육의 영역에서 지역 맞춤형 모델을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둘째, 국외 협력은 글로벌 기술인재 양성, 다문화 및 국제교류, 해외 유학생 연계, 직업교육 국제 네트워크와 접속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셋째, 연구원은 이 두 축을 각각 분리된 사업군으로 두지 말고, 공통의 연구 프레임과 성과지표, 자료 아카이브를 통해 통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원이 생산하는 보고서, 평가도구, 연수자료, 사례집, 디지털 플랫폼이 모두 ‘기입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기입 장치는 복잡한 협력 관계를 문서, 수치, 지도, 매뉴얼, 모델로 고정하여 다른 행위자들이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이다. 연구원이 국내외 협력의 성과를 이런 형태로 체계화할 때, 협력은 행사 중심의 외연 확장에 그치지 않고 경북 교육의 제도적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다.

마.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역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은 정책을 수동적으로 전달받아 수행하는 부속기관이 아니라, 경북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를 연결하고 번역하는 핵심 노드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한 미래교육지구, 교육발전특구, IB, 고교학점제, 인구교육, 다문화학생 지원, 글로벌 기술인재 양성, 해외 교육기관과의 협약은 연구원이 문제제기-등록-동원으로 이어지는 번역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폭넓은 조건을 제공한다. 연구원이 이 협력 구조를 연구·자료·평가·플랫폼 운영으로 재구성하여 스스로를 필수통과점으로 확립할 때,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이 결합된 경북형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가 비로소 제도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

III. 지적 전위대로서의 연구원 역할 재정립

결론적으로 경북 교육의 국내외 연계 및 확산은 단순히 협약 건수를 늘리거나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경북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을 새롭게 연결하고 재조정하는 네트워크의 확장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Fenwick과 Edwards가 교육에서의 ANT를 통해 강조하듯(소경희, 2024), 교육 변화는 제도나 사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 문서, 플랫폼, 평가 체계, 공간, 기술, 파트너 기관이 함께 얽히는 사회-물질적 배치 속에서 현실화된다. 이런 점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역할은 단순한 연구 수행기관이나 사업 지원 부서를 넘어, 분산된 교육 역량을 연결하고 번역하는 실천적 허브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원은 경상북도교육청이 이미 구축해 온 국내외 협력 자산을 ‘연결되지 않은 개별 사업’으로 두지 않고, 추적 가능한 지식 체계로 전환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발전특구, 미래교육지구, 지역중심 교원 양성, 글로벌 기술기능 인재 양성, 몽골총괄교육청 및 각종 해외 기관과의 협약 등을 연속적으로 추진했는데, 이러한 협약이 실제 교육 혁신으로 이어지려면 사업 설계, 자료 개발, 성과 분석, 현장 피드백을 담당하는 안정적 중간조직이 필요하다. 연구원은 바로 그 지점에서 협약의 내용을 연구 과제로 정식화하고, 학교 적용 모델과 연수 프로그램, 성과 지표와 사례집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사실상의 ‘필수통과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연구원이 “교육연구” 분야에 한해서 직접 협약의 주체로 기능할 필요도 있다. 인근 대학의 교육연구소, 국내외 교육연구 기관 및 대학, 협회, 기업 등과의 직접 연계는 협약의 내용과 실천적 사항을 더욱 교육연구 분야에 집중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역할 재정립은 현재 수행 중인 기능을 전략적으로 묶는 방식에서 시작하는 것과 주체적 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첫째, 연구원은 “교육연구”와 관련한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지자체, 대학, 산업체, 해외 기관 간 협력 사업을 공유받는 시스템을 구축 및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중복을 줄이고 성과를 비교 가능한 형태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미 운영 중인 디지털 기반 기능을 국내외 협력의 공용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현장 실천 사례와 성과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환류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개별 협약에 따른 성과 분석을 상설화하고 연구원이 최소한의 평가 기준과 환류 체계를 제공하면, 협력이 행사성 이벤트에 머무르지 않고 실용성 있는 정책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연계 측면에서 연구원은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연구 가능한 모델’로 정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래교육지구와

교육발전특구, 지역중심 교원 양성, 소규모 학교 지원, 도농이음교실 등과 같은 사업은 이미 지자체·대학·공공기관, 지역 일선 학교들과의 협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연구원은 이를 단순 사례 소개가 아니라 운영 구조, 참여 주체, 예산 방식, 학교 변화, 지역 파급효과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다른 시군이나 타 시도와 공유 가능한 경북형 모델로 발전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정책 실험의 기록자’로, 더 나아가 ‘모델 설계자’로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국외 연계 측면에서는 본청과 중첩되지 않는 선에서, 연구원의 “교육연구” 분야의 강점이 드러나는 영역을 선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타당하다. 현재 공개된 협약을 보면 글로벌 기술인재 양성, 직업교육, 국제교류, 다문화·유학생 관련으로 매우 거시적인 의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므로, 연구원은 이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비교 연구, 경북형 적용, 종속적이고 미시적인 의제 연구,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서 추가적인 진행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시 말해, 국제교류의 외연 확장은 본청과 학교 현장이 담당하되, 연구원은 그 성과를 구조화하고 표준화하여 경북 교육 전체가 학습할 수 있는 지식으로 전환하는 후방 싱크탱크이자 전방 번역자로 기능하는 점과 연구원에서만 특화하여 할 수 있는 교육연구 분야의 실용적 차원의 기능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 소경희(2024). 교육과정 연구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사유하기: 사회-물질적 접근의 함의. *교육과정 연구* 42(3), 1-23.
- 이중학 외(2025).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조직: 액터-네트워크 이론 관점에서 본 HR 역할의 진화. *경영학연구* 54(6), 1541-1561.
- 유고은·박휴용(2026).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의 관점으로 본 디지털 도구의 행위성 분석- 패들렛을 활용한 질 문형성기법(QFT) 수업을 중심으로-. *통합교육과정연구* 20(1), 89-115.
- 김정식·박상옥(2025).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활용한 ‘마을학교’ 네트워크 분석 - 전대마을학교와 광석마을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평생교육학연구* 31(4), 241-279.
- 한승희·최근정·신혜정(2025). 사회물질적 존재론 관점에서 본 학습의 조건. *평생교육학연구* 31(4), 1-43.
- 정예은(2025). 관계적 주체 형성을 위한 서사 감상 교육 방안 탐색 -내재적 성찰(infra-reflexivity)의 실천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108, 359-393.
- 신은하·박휴용(2025). 인스타그램 관계망이 초등 교사의 교육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행위자-네트워크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42(3), 247-276.
- 정현철·류춘렬(2025). 과학 영재교육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 정책 병목 현상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연구* 35(3), 251-287.
- 박양주(2025). 도구에서 행위자로 : 매체 발달에 따른 교육에 크놀로지의 존재론적 위상 재고찰. *교육비평* 58, 406-439.
- 홍성욱 외. (2008).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서울: 이음.
- Callon, M. (1986). Some elements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domestication of the scallops and the fishermen of St Brieuc Bay. In J. Law (Ed.), *Power, action and belief: A new sociology of knowledge?* (pp. 196-233). London: Routledge.
- Fenwick, T., & Edwards, R. (2010). *Actor-Network Theory in Education*. London: Routledge.
- Latour, B. (1987). *Science in action: How to follow scientists and engineers through socie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atour, B. (1992). Where are the missing masses? The sociology of a few mundane artifacts. In W. E. Bijker & J. Law (Eds.), *Shaping technology/building society* (pp. 225-258). Cambridge, MA: MIT Press.
- Latour, B. (1999). *Pandora's hope: Essays on the reality of science studi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atour, B.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0003086